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육부 주관 4단계 BK21 사업 선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국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초대형 재정지원사업'인 4단계 BK21(Brain Korea 21) 사업에 선정되었다. BK21 사업은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7년 단위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 간호분야가 신설되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방경숙 단장을 중심으로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을 결성하여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사업(과학기술 분야)에 지원하였으며, 지난 9월 6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 같은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으로 연 4,080억씩 총 약 2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간호대학 연구단은 연간 약 4억 규모로 7년간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은 인간중심의 통합케어 능력과 연구능력을 함양한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간호대학 교수 17명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사업 지원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고도화된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보건의료 현장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능한 실무전문가이면서 간호과학의 학문적 지식체를 발달시키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국제적인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번 BK21 사업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간호 인재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세계적인 수준의 간호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데에 앞장 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보다 나은 전방 + 교육부 사람투자

4단계 BK21 사업 추진

BK21 FOUR (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통한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2020.9~2027.8(7년간) 연간 4,080억 원 연간 19,000명 지원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주요 보직현황

교수	신 임 교 수	김현의 교수 (2020. 9. 1.자)
	명 예 교 수 추 대	김정은 교수 (2020. 9. 1.자)

간호대학 소식 02

교수동정 신임교수임용 : 김현의 교수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부터 간호정보학 부교수로 임용된 김현의 입니다.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정보학 연구를 할 수 있는 큰 행운을 가지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ies에서 Health Informatics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보스톤의 Harvard Medical School의 정보학 프로그램 중 하나인 Brigham & Women's Hospital에 마련된 Decision Systems Group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쳤습니다. 또한 City of Hope Medical Center와 Partners Healthcare에서 다년간 정보학 관련 실무와 연구기회를 가졌습니다. 2009년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의과대학의 의료정보학 프로그램의 교수로 임용되어 8년간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직했고 이후 Duke University 간호대학의 정보학 부교수로 자리를 옮겨 정보학 교육 프로그램과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프로그램의 책임교수로 일하던 중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모교와 모국의 간호정보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접하고 큰 기대와 꿈을 품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 마련

입니다. 인프라 개발 방법론 개발과 평가의 일환으로 다양한 임상 및 보건 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NIH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의 연구비 지원을 토대로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정밀 의학을 위한 건강관련 생활양식데이터의 활용과 임상데이터의 질관리라는 두 영역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무

기록과 간호기록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개개인에 특화된 효과적인 질병 예방, 치료 및 관리 방법을 도출해내고 그 과정에 사용된 데이터 준비, 처리, 분석방법 등을 정보학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무궁무진한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대학 소식 03

연구실 탐방 서울대학교 아동건강간호 연구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아동건강간호 연구실은 채선미 교수님의 지도 아래 아동의 총체적 건강과 간호에 대해 연구하는 학생들이 모인 연구실입니다. 채선미 교수님의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건강증진, 저체중 출생아의 이행간호(transitional care),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등입니다.

최근 수행 중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영아와 어머니의 수면 증진을 목적으로 모바일 기기 기반의 Ecological

Momentary Intervention(EMI)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2018년부터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로서 첫 해 질적 면담을 통해 영아와 어머니의 수면 양상과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차년도 연구에서 수면측정 기기를 영아와 어머니가 직접 착용하여 얻은 실시간 수면 측정값과 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3차년도인 현재, 과년도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실험중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영아 수면의 특성, 수면 안전과 건강한 수면증진 전략 등의 정보와 수면 모니터 기능, 챗봇을 통한 상담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현 수면양상을 모니터링하고 건강한 수면의 증진을 돕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영아와 어머니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고 자원 및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순간 중재를 도입한 것으로 신체에 착용하는 수면 측정 기기와 대상자들이 늘 휴대하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실제 수면 양상을 실시간에 가깝게 반복하여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영아와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건강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추후 아동기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어머니의 수면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 외에도 아동의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연구 및 학술적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꾸준한 모임과 연구를 통해 아동간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Development of 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 for sleep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Sun-Mi Chae¹, Soo-Yeon Han², Cho Hee Kim², Ji-Hye Hwang², Na-ry Chung²
¹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College of Nursing & SNU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²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urpose
 Sleep is an essential factor for optimal health. Infancy is the period to learn and develop good sleep habits. Most of the mothers with an infant have trouble in sleeping their infants and further express their own sleep deprivation due to uncontrollable infant sleep.

Methods
 This is a methodological study developing a mobile application using literature review, expert feedback, and interviews with mothers of infants.

Results
 This application, BAGOONI includes sleep information, chatbot service, mobile sleep monitoring, other related web links, and maternal chatting board (Figure 1).

Conclusion
 An 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 could be one of the best modes for the new era requiring less physical contact after COVID-19 pandemic. The interactive sleep applic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maternal understanding of infant sleep and enhance the quality of sleep for both infants and mothers.

Key words: Infants, Mothers, Sleep, Mobile application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RF-2018R1A2B6005201).

간호대학 소식 04

2020학년도 교수-학생 간담회

2020년 6월 19일(금) 간호대학 4층 408호에서 교학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학장단과 학생회, 학년대표, 행정실, 조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방경숙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학생회와 학교가 차례로 활동을 보고하였다. 이후로는 학생 건의사항 및 학교의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간호대학의 관악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경과와 학생들의 건의사항 및 우려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교에서는 지난 학기 학생 건의에 대한 개선 결과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수-학생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편의와 학교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쓸 것을 약속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5

김정은 교수 퇴임 전 마지막 수업

2020년 6월 19일(금), 김정은 교수(소비자건강정보학 전공)의 간호대학에서의 마지막 수업이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마지막 수업을 기념하기 위해 방경숙 학장, 서은영 교무부학장, 채선미 학생부학장, 최희승 학과장이 함께 자리하였다.

방경숙 학장은 “간호연구실습 과목이 학부 학생들이 연구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어려운 수업임에도 맡아 진행하시면서 애정을 다해 열성적으로 지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4학년 김정민 학생은 참석한 학생들을 대표하여 “2학년 때 들었던 교수님의 첫 강연이 매우 흥미롭고 열성적이어서 학부 생활 동안 기억에서 잊지를 못한다”며 아쉬움을 전하였다. 김정은 교수의 마지막 간호연구실습 수업을 수강한 4학년 학생들도 마음을 담아 준비한 롤링페이퍼를 전달하였다. 학장단과 학생들의 감사인사 후 김정은 교수는 지금까지 간호대학에 몸 담으면서 있던 추억을 회상하고, 간호학박물관에 대

한 남다른 애정을 내보였다. 교수자로서의 역할은 마치게 되었지만 간호학박물관을 유지하며 간호대학의 발전을 도울 것이며,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간호대학 소식 06

2020 간호학캠프 개최

2020년 8월 20일(목), 21일(금) 이틀에 걸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2020 간호학캠프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간호학문을 탐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고교생들에게 제공하여 간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진로 탐색 및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20 간호학캠프는 방경숙 학장의 환영사와 채선미 학생부학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후 간호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서은영 교무부학장의 특강과 채선미 학생부학장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전공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참가 학생들이 간호술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활력징후 측정과 보호장구 착용을 실습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간호대학의 SHINE Center, 간호학박물관, 간호대학 제2연구동 등을 보고 간호대학 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최신시설을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고, 직접 방문하지 못해 아쉽다.” 등의 소회를 표현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간호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진로에 대

해 최희승 학과장의 특강이 있었다. 간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이 선발된 만큼 참여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하고 소감을 표현하는 등 특강 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성황리에 종료된 2020 간호학캠프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리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고교생들에게 간호와 관련된 기초 지식과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계획 수립, 동기 부여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간호대학 소식 07

하계교수 WORKSHOP

2020년도 하계 교수 워크숍이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2일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408호 세미나실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대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관악이전사업 계획'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간호대학 교수 20인과 조교 4인이 참석한 가운데 방경숙 학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오전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유미 교수를 초청하여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환경디자인 교육과 적용' 특강을 진행하였고 미래 간호대학의 조정과 환경디자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서은영 교무부학장의 '관악이전사업과 공간 조정 계획' 발표와 열띤 논의로 진행되었다.

서울 광진구로 이동하여 진행된 22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단합을 도모하였으며, 22일 저녁에는 퇴임을 맞은 김정은 교수를 모시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위해 힘써온 김정은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앞으로 진행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관악이전사업과 공간조정, 공간설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간호대학 소식 08

제74회 후기 학위수여식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74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21명, 석사 1,031명, 박사 690명 등 총 2,642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오세정 총장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 졸업생을 맞이하게 되어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 있으나, 학위 과정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에서 졸업생 모두 앞으로 마주할 여러 난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으로 자신을 믿고 당당히 세상에 도전하기를 응원한다. 더불어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졸업생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자세를 발판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고 화합하여 갈등

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축사는 이희범 총동창회장이 맡았다. 이희범 총동창회장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 끊임없이 공부하며, 급변하는 시기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갈길 당부하였으며, 사회에 나아감에 있어 성실성과 이해라는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을 강조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간호대학은 학사 13명, 석사 12명, 박사 16명 도합 41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우리 졸업생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대학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의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길 기원해본다.

간호대학 소식 09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이전 확정

간호대학의 숙원 사업이었던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이전 사업'이 2020년 10월 13일 서울대학교 본부 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간호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 부지는 31동 재건축 부지로 확정되었으며, 간호대학 신축 건물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간호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타 단과대학과의 교류, 연구, 협업의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본격적인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이전 추진에 힘입어 간호대학이 다양한 학문 분야와 소통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간호대학 소식 10

2020학년도 간호대학 모교방문행사

간호대학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가 10월 16일 (금)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50주년(70년 졸), 40주년(80년 졸), 30주년(90년 졸) 졸업생과 간호대학 교수, 그리고 동창회 임원 등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부득이 졸업생 동문들을 학교에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나, 50주년 졸업생 동문 10분게서 특별히 학교를 방문해주셨다.

온라인 행사는 간호대학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었다. 행사는 방경숙 간호대학 학장과 허영 간호대학 동창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모교를 방문하지 못하는 동문들을 위한 간호대학 투어 영상, 발전기금 전달식, 학생회 감사 인사로 이어졌다. 더불어 50주년(70년 졸), 40주년(80년 졸), 30주년(90년 졸) 졸업생들은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아 추억 영상을 제작하여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50주년(70년 졸) 졸업생 김영숙, 김옥련, 신숙희, 신혜선, 오세영, 유재희, 임영숙, 조동란, 조명숙, 최명애 동문께서는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을 방문해주셨다. 학교를 방문해준 동문들을 위해서 방경숙 간호대학 학장, 허영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간호대학 교수 그리고 동창회 임원들이 맞이하였다. 비록 많은 동문들이 함께하지는 못하였지

만, 모교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고 모교의 발전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발전기금 전달식을 통해 50주년 동문에서 총 5천9백만원, 40주년 동문에서 3천7백5십만원, 30주년 동문에서 1천1백7십5만원을 간호대학에 기부하였다. 이에 방경숙 학장은 “모교에 항상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동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간호대학 관악 캠퍼스 이전과 더불어 앞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빨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종식되고 일상을 되찾아 우리 동문들이 서로 만나 친목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간호대학 소식 1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계약학과(임상간호학과) 협약 체결



2020년 9월 7일(월) 서울대학교 본부 소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계약학과 설치·운영 관련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정 서울대학교총장 비롯해 방경숙 간호대학장·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백용민 분당서울대병원장·이경이 서울대병원 간

호본부장·김선경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등 대학 및 병원의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오세정 총장은 축사를 통해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자 세계 간호사의 해로 지정된 2020년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임상 전문 간호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장차 미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방경숙 학장은 “간호대학 계약학과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꺼이 협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며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미래 간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간호대학은 오는 2021년 전기부터 임상 전문 간호사 양성을 위한 임상간호학과(석사과정)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협약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간호사로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선발하게 된다. 임상간호학과와 의정원은 총 15명으로 계약학과를 통

해 입학한 학생들은 소속된 병원으로부터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간호대학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간호대학 소식 12

환경개선

○ 본관 학장실 및 교수회의실 LED 등기구 교체

- 일시 : 2020. 07. 25.

- 내용 : 학장실 및 교수회의실 노후 등기구 교체(고효율 LED 등기구)

○ 제2연구동 스탠딩 테이블 이전설치

- 장소 : 제2연구동 1층 휴게실 및 2층 강당 로비

- 일시 : 2020. 10. 01.

- 내용 : 제2연구동 수정체 2층, 3층 휴게실에 설치된 스탠딩 테이블을 연구동 1층 학생휴게실 및 2층 강당 창가에 이전 설치

○ 제2연구동 옥상 방수공사

- 일시 : 2020. 09. 17. ~ 0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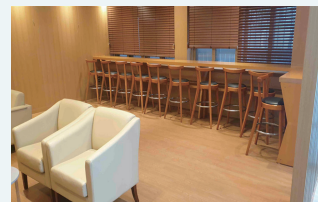
- 내용 : 제2연구동 옥상 바닥 우레탄 방수층 보수공사



학장실 LED 전등 교체



교수회의실 LED 전등교체



연구동 1층 휴게실



연구동 2층 강당 로비

간호대학 소식 13

직원동정

○ 서무행정실 담당관 조정우

간호대학에서 시설물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조정우입니다. 저는 2000. 6 서울대학교 반도체 연구소에서 첫 업무를 시작으로 고가 연구기자재 관리 약 14년 담당하였고 이후 2014. 4 치의학대학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 7 인사이동에 따라 간호대학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간호학 발전에 노력하시는 교수님 및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 또한 이전 기관과 같은 시설관련 업무 및 안전관리 업무이기에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실

〈2020.7.3.발령〉 서무행정실 담당관 조정우

○ 부속실

〈2020.10.5.임용〉 장미리

○ BK2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

〈2020.10.5.임용〉 최승연

○ 시설관리반

〈2020.9.1.임용〉 청소 박달막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2020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간호대학 학부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연구발표회를 진행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 일시 : 2020년 06월 19일 (금) 13:00~15: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

시간	내용	비고
13:00~13:10	심사위원 소개 및 인사말	최희승 간호과학연구소장
13:10~14:10	논문발표(6팀) 조별 10분 발표	[심사위원] 최희승 간호과학연구소장 서은영 간호대학 교무부학장 김정은 간호연구실습 지도교수
14:10~14:30	심사 총평	심사위원 교수
14:30~14:50	시상 및 기념사진 촬영	대상(1팀), 최우수상(2팀), 우수상(3팀)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3

2020년 대학원 학술지원 계획

2020년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된 비용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대학원 학술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2

여름방학 통계 특강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통계 특강을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름방학 통계 특강 일정

- 일시 : 2020년 7월 15일 (수) 10:0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103호
- 강사 : 허익수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시간	주제	내용
10:00~10:50	R 프로그램 강의 1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의 입출력
11:00~11:50	R 프로그램 강의 2	기본적인 자료계산 및 함수 소개
12:00~13:00	점심시간	
13:00~13:50	기초 통계 강의 1	기초 통계량 및 분포 소개
14:00~14:50	기초 통계 강의 2	Z-test, T-test 등 두 그룹 간 평균 비교
15:00~15:50	중급 통계 강의 1	ANOVA, 회귀분석
16:00~16:50	중급 통계 강의 2	범주형 자료 분석, 비모수 자료 분석

학술활동명	지원대상	지원내역
대학원생을 위한 영어논문 Editing비 지원		연간 횟수에 상관없이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금		에디팅비 혹은 논문게재료를 합쳐 총액 40만원 지원
대학원생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포함)	대학원생 (재학중 또는 연구생등록자)	연간 1인당 2회(국내 1회, 국외 1회) - 북미/유럽 100만원 지원 - 아시아 50만원 지원(북미와 아시아는 지도교수당 2명만 지원가능) - 한국: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내/국제 학술대회 모두 등록비 지원가능 (1회 최대 10만원 지원) - 2020년도 예산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회의 등록비를 실비 지원하기로 함(단, 지도교수당 2명으로 한함). * 제시된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금이며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 가능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4

2020년 2학기 수요학술세미나 일정 및 주제 안내

2020년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2학기 수요학술세미나가 2020년 9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다섯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2학기 수요학술세미나는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Zoom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순서	날짜	주제	연자 (소속)
1	09월 16일	장애인의 의료결정권	박소연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재활병원)
2	10월 07일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통합적 이해	지석연 소장 (시소감각통합상담 연구소: 서울재활병원)
3	11월 04일	시간 속의 인간	유요한 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4	11월 11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간호사의 역할	신동수 교수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5	12월 02일	게임에 빠진 청소년의 심리 이해	홍석관 교수 (한국 IT직업전문학교 게임학과)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5

2020년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A New Era of Nursing Educ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he 13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ference "A New Era of Nursing Educ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일정

- 일시 : 2020년 9월 22일 (화) 10:00~12:30
- 장소 : 웨비나
- 주최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시간	강연	강연자
	Moderator: Kyungmi Woo,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NU	
10:00~10:10	Opening Ceremony Opening Address: Heeseung Choi, Director,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NU Congratulatory Remark: Kyung-Sook Bang, Dean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NU	
10:10~10:30	Plenary Session 1 Rethinking nursing education following COVID-19	Karen H. Morin Professor,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College of Nursing
10:30~10:50	Plenary Session 2 Online nursing faculty, virtual classrooms, and clinical simulation: Expanding boundaries to meet global healthcare needs	Mary Ellen Glasgow Dean & Professor, Duquesne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10:50~11:00	Q & A	
11:00~12:20	Plenary Session 3 Lessons Learned from applying new learning methods 1) Technology in nursing education: Options and readiness 2) VR based learning in nursing education 3) Optimization design research and class operation support for online class: SNU Case 4) Technology-based clinical education in nursing	Kam Cheong Li Professor, Hong Kong Open University Wen Yu Hu Professor, National Taiwan University Hyeree Min Professor,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SNU Heeseung Choi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NU
12:20~12:30	Q & A	
12:30	Adjourn	Heeseung Choi Director,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NU

학부 소식 01

학생회 이야기 - 제 29대 학생회 이야기

1. 4월 학생회 비대면 이벤트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고 대체 프로그램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함에 따라 학생회 문화기획팀에서는 비대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4월 9일~4월 12일에는 '인스타그램 설간 빙고 이벤트'를, 4월 13일~4월 18일에는 '간호대학 네이버카페 비대면 강의 모습 공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설간 빙고 이벤트의 경우 학생회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대한 빙고판을 각자 작성해서 개인 계정에 업로드하고, 비대면 강의 모습 공유는 각자 비대면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모습 사진을 업로드하면 각각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2. 1학기 간식사업

공부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학우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의 일환으로 학생회 학생복지팀에서는 4월 17일에 중간고사 간식사업을, 6월 8일에 기말고사 간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간식은 비대면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상황임에 따라 전례 없이 온라인 기프트콘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중간고사의 경우 '던킨도너츠 그레이즈드 + 아메리카노'를 각 학년별 25명, 기말고사의 경우 '롯데리아 데리버거 세트'를 각 학년별 30명에게 선착순으로 발송했습니다.

YEAR/MONTH/DAY		TIME																		
2020 / 06 / 08 (월)		PM 5:30																		
COMMENT																				
기말고사 간식사업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 <너들>																				
MENU		수령방법																		
롯데리아 데리버거 세트		구급품으로 신청 (후후 기프트콘 지급)																		
		TIME TABLE																		
학년별 30명 선착순		<table border="1"> <tr><td>6</td><td></td></tr> <tr><td>7</td><td></td></tr> <tr><td>8</td><td></td></tr> <tr><td>9</td><td></td></tr> <tr><td>10</td><td></td></tr> <tr><td>11</td><td></td></tr> <tr><td>12</td><td></td></tr> <tr><td>1</td><td></td></tr> <tr><td>2</td><td></td></tr> </table>	6		7		8		9		10		11		12		1		2	
6																				
7																				
8																				
9																				
10																				
11																				
12																				
1																				
2																				

3. '너들에게 말해봐' 오픈채팅방 개설

학년대표나 회장단에게 직접 문의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익명으로 누구나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너들에게 말해봐' 오픈채팅방을 7월 10일에 개설하였습니다. 채팅방을 활용하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학생회 활동에 대한 '건의', 학생회 활동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질의', 마지막으로 남들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에 대한 '상담'입니다. 각 항목의 담당자 또한 모두 익명으로,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습니다.

4. 과목OT

1~3학년을 대상으로 선배로부터 전공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과목 OT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각 학년별로 전공 수업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zoom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계획서 내용에 덧붙여 선배들만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얻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과목 OT 이후에는 OT 진행하신 선배들이 만든 자료를 배포하여 미처 참석하지 못한 학우분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동아리연합회칙 제정 및 동아리연합회 구성

간호대학 동아리의 경우 타 단과대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고, 그 현황 파악 및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학생회에서는 7월 20일자로 동아리연합회칙을 신설하고 동아리연합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다소니, 여우비, 펍크미션의 세 동아리가 정식등록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생 동아리 가등록은 상시모집으로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즈음에는 동아리연합회 초대 회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회 대외교류팀장 박지원 학생이 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6. 학생회칙 전부개정 및 공고

제8차 간호대학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7월 29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간호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의 변화로 인한 일부 내용 개정과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회 활동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의 신설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고한 7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개정된 회칙 전문은 간호대학 공식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7. 간호대학 알쓸신잡 사업

학부생들에게 학교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학생회 학술지원팀에서 9월 1일, 알쓸신잡 1호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카드 뉴스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파트는 간호대학의 가장 의미 있는 행사인 나이팅게일 선사식을 소개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학교생활에 대한 신입생들의 질문을 받아, 학생회 내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한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신입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8. 교재기부 사업

3월 12일~14일까지 교재기부를 받아, 9월 16일에 교재기부 사업의 배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기부해주신 국가고시 교재 및 전공 교재를 신청자들 대상으로 배부했습니다. 중고 책 교류를 통해 버려지는 교재를 최소화하고, 후배들은 교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교재기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학생회비로 이용되어 학생들을 위한 여러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9. 간호대학 e-sports 대회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를 포함한 교류 행사들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작게나마 간호대학 내에서 학우들끼리 즐기는 장을 만들고자 학생회 대외교류팀에서 9월 19일 간호대학 e-sports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종목은 모바일 카트라이더 게임이었습니다. zoom을 켜고 각자 휴대폰으로 대회에 접속하였고, 1, 2, 3등은 각각 유요셉(20학번), 박찬재(20학번), 국원호(19학번) 학생이 차지하였습니다. 대회 종료 후에는 함께 카트라이더 게임을 더 즐기다 zoom 마피아 게임을 하는 등 즐거운 뒤 풀이도 이루어졌습니다.



10. 선거시행세칙 제정, 학생회칙 개정 및 공고

간호대학 회장단 선거의 경우, 학생회칙에 있는 일부 조항을 통해 선험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선거시행세칙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제10차 간호대학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9월 20일, 선거시행세칙 제정 및 학생회칙 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선거시행세칙은 9월 20일부터, 학생회칙 개정본은 공고한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

으며, 세칙과 회칙 전문은 간호대학 공식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학부 소식 02

동아리 탐방 - H.I.S.

18학번 이진아

혹시 스트리트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스트리트댄스(street dance)는 20세기 이후, 각 문화의 전통 무용이나 발레 등의 이른바 순수 무용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대중문화 기반의 춤 전반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춤이 길거리 등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길거리를 뜻하는 street와 춤을 뜻하는 dance가 합쳐져 street dance라는 하나의 장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H.I.S. (히스)는 Hoofers In SNU(서울대학교의 춤꾼들)의 약자이며, 서울대학교의 유일한 중앙 스트리트댄스 동아리입니다. H.I.S.는 1996년 창설된 중앙 동아리로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방은 관악캠퍼스 63동(학생회관) 426호에 있습니다. K-pop 커버처럼 특정 노래에 정해진 안무를 연습하는 다른 댄스 동아리들과 달리 H.I.S.에서는 8개 장르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것이 매력이자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프리스타일 연습이나 월간배틀 등 스트리트댄스의 문화를 즐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르에 대해 더 소개해드릴게요. H.I.S. 안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인(Breakin'), 팝핀(Poppin'), 걸스힙합(GirlsHiphop), 힙합(Hiphop), 와킹(Waacking), 락킹(Locking), 크럼프(Krump), 하우스(House)처럼 특색 넘치는 8개 장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장르는 동아리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H.I.S.는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내 활동으로는 새내기대학 및 새터 찬조 공연, HISTREET(3월에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캠퍼스 내 길거리 공연), 학교축제 폐막제 공연(봄/가을축제 폐막제 공연에서 직접 구성한 안무로 학교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월간배틀(H.I.S.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프리스타일 배틀. 외부 게스트나 Judge를 초청하기도 함), 정기공연(H.I.S. 의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외에 교외 활동으로는 The UNION(Flowmaker Streetdance Agency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학 댄스동아리 연합 퍼포먼스 행사, H.I.S.도 공연을 하며 다른 대학 댄스동아리들과 전문 댄스들의 공연도 보고 교류하는 기회), 버스킹(학교 외부 길거리에서 H.I.S.와 스트리트 댄스를 소개하고 직접 스트리트 댄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행사, 2019년에는 신촌에서 진행), 대접전(전

국 대학 댄스동아리 배틀)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아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신학회, 봄 MT, 홈커밍데이, 여름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비록 COVID-19 이후 동아리 활동이 어려워졌지만, H.I.S. 동아리원들은 돈독한 관계와 춤에 대한 애정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가족기수 주최 하에 '벼랑 위의 히스'라는 배틀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손소독제 사용과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H.I.S. 사람들은 여전히 혼자 또는 여럿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럼 H.I.S.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H.I.S.는 전공 불문, 학부생, 대학원생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H.I.S.의 좋은 점은 춤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마음껏 도전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점입니다. 가입 오디션도 없고, 춤을 취본 경험이 없어도 기본기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춤에 관심 있었던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춤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H.I.S.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H.I.S.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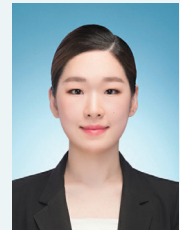
[Youtube] <https://youtube.com/c/HoofersinSNU>

[Facebook] <https://facebook.com/HoofersinSNU>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① - 신입간호사 채용 합격 수기 “서울대학교병원”



17학번 권영란

4학년 1학기는 실습, 시험 그리고 취업 준비를 병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일어난 많은 변화는 채용 일정을 포함한 4학년 1학기에 진행될 모든 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더욱 집중했던 시간들이 다가온 취업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인턴십과 다른 병원에서의 실습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배들에게 여러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가장 많이 경험하였기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제가 제공하는 간호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의 채용공고는 작년보다 약 2주 정도 늦은 시기에 올라왔고 서울대병원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안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3차 실무면접, 4차 최종면접(경영진 면접) 그리고 5차 신체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류전형에서 작성하는 입사지원서는 크게 1)5개 전공과목 성적 2)공인 영어성적 및 자격증 3)경험 및 경력 4)자기소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 이후 입력이 제한되는 내용이 많고 잘못된 기재 시 불합격 처리될 수 때문에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전형뿐만 아니라 면접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은 대학 시절 동안 했던 활동들과 인상 깊은 경험 및 느낀 점 등을 정리해두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원서와 면접 답변에 필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면서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3학년 겨울학기에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많은 내용을 수정하였지만 먼저 문항을 읽어보고 작성해보지 않았으면 학기 중 지원한 여러 병원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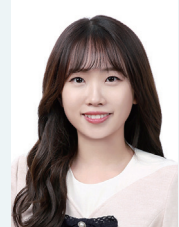
서류전형의 합격자가 발표되고 약 일주일 뒤 필기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필기시험은 간호학 전반에서 출제되지만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성인간호학 1, 2·아동간호학·기본간호학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고시 문제집의 개념 정리와 예상 문제로 공부하였던 것이 필기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이라는 산을 넘으면 두 개의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암기하는 연습 방식은 면접에서 부자연스럽게 답하게 만들며 오히려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질문에 즉석으로 답하는 연습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답하는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동기들과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실전과 같은 연습을 반복하였습니다. 실무면접은 실제 병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지녔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다루는 참고를 활용하여 간호의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대처법을 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경영진 면접은 기본적인 인성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면접으로, 면접장에서의 당당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면접이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채 면접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표정으로 표현하기 힘든 자신감을 당찬 말투로 보여준다면 최종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제가 배운 것은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면 어느새 부족함이 하나둘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라는 과제도 저에게 때때로 절망을 안겨줬지만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둘 해나가니 어느새 꿈에 좀 더 다가가 있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신을 믿고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② - 신입간호사 채용 합격 후기 “삼성서울병원”



16학번 박준현

간호대학 뉴스레터에서 선배들의 채용 합격수기를 읽어보던 제가 후배들에게 합격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학사일정뿐만 아니라 병원의 채용 일정 및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빅3 병원의 채용 일정은 대체로 평년 기준 5월 초 삼성서울병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 일정이 많이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6월 1일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시작으로 서류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채용 공고가 나오는 시기는 한창 실습과 각종 학사 일정으로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공고가 나온 뒤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다소 시간이 빠듯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겨울 방학이나 학기 초에 미리 각 병원의 자소서 항목을 찾아보고 초안을 작성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때 자소서에서는 자신이 병원의 가치관과 비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병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라는 것을 사례나 활동 중심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답변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 채용 공고가 나온 후에는 초안을 바탕으로 구체화시킨 자소서를 친한 동기들과 함께 읽어보고 첨삭해주면 자소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든 병원에서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요구하므로, 최소한 4학년 개강 전까지는 영어 성적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졸업을 유예했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로운 겨울 방학에 토익 시험을 봐야겠다고 단호하게 생각하며 시험 응시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2월부터 토익 및 텡스 시험이 연속해서 취소되어서 정말 애가 탔습니다. 후배분들은 꼭! 일찍이 유효한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적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후배들이 많은데, 토익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0점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필기시험인 GSAT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서류전형 결과 발표 후 GSAT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GSAT 공부 역시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GSAT의 시험 과목으로는 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간호지식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GSAT을 온라인으로 응시하게 되어 수리논리(20문항)와 추리(30문항), 간호지식(25문항) 3과목만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GSAT 시험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각 과목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 때문에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아예 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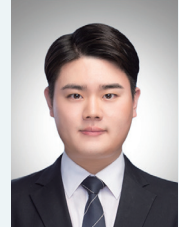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는 반면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가 깎이는 방식으로 채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GSAT 문제집을 구입해서 과목 별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이 있는 유형의 문제를 위주로 빠르게 풀고 어려운 유형은 과감히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야 시간도 절약하고 오답으로 인한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GSAT까지 통과했다면 다음 단계는 두 차례에 걸친 대면 면접 전형입니다. 올해의 경우 GSAT 시험이 7월 4일에 시행되었는데, 이를 뒤인 7월 6일에 바로 결과가 발표되고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에 걸쳐 실무면접이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면접 대비 역시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5~6명의 동기들과 면접 스티디를 했는데, 환자의 사례를 본 후 우선적인 간호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간호중재를 서술하는 문제와 간호중재의 목적과 절차를 서술하는 문제를 각각 만들어 모의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대비했습니다. 실제 실무 면접에서도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의 건강 문제를 사정하고 간호 진단과 중재를 묻는 질문을 받아 면접 스티디에서 연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무 면접 진행일에는 조직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성 검사와 약식 GSAT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약식 GSAT의 경우에는 수리논리와 추리 영역을 각각 10문제와 15문제가량 봤는데, 인사팀 담당자님들께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약식 GSAT도 집중해서 잘 치르는 것이 좋겠지요? 실무 면접 1주일 뒤 시행된 경영진 면접에서는 주로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간호직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영진 면접의 경우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되짚어 보되, 빈출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키워드와 핵심 사례 중심으로만 정리해서 가면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병원의 채용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이 겹쳐 두 병원, 때로는 세 병원 중 하나를 바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과에서 주최하는 간호인의 밤 행사나 진로 캠프, 선배와의 만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각 병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과 가장 맞는 병원을 탐색하는 것이 채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의 혁신적인 조직 문화, 환자와 간호사 모두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좋은 인상을 받아 삼성서울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후배 분께서 자신이 후회 없이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③ - 신입간호사 채용 합격 수기 “서울아산병원”



15학번 천준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하여 임상 간호사로서의 꿈을 키워오면서 후에 어느 병원을 지원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부 4학년 1학기 과정 중에 신규간호사 채용 공고가 올라왔고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과정을 회상해보았습니다.

병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신의 성향이나 가치관과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적응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병원마다 근무하는 선배 간호사님들의 조언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에 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만의 친취적인 마인드와 경력관리제도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특히 의료비상팀(Medical Alert Team, MAT)을 두어 환자의 상태악화 예방 및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고, 나중에 의료비상팀의 일원으로 근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채용 과정은 1단계 서류전형부터 5단계 신체검사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전형으로 학업성과 공인영어시험 성적, 자기소개서 및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통하여 선발합니다. 다른 동기들에 비해 학업 성적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올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공인영어시험 성적은 올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시험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병원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부합하도록 임상 실습에서의 경험을 녹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녹여 내어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2단계는 AI 면접 및 조직 적합성 검사로 자유로운 장소에서 정해진 일자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직 적합성에 관한 설문과 간단한 게임으로 구성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대인관계나 간호에 관한 질문이 있어 카메라를 응시하며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긴장에 예상하지 못

한 질문에는 답을 깔끔하게 하지 못했지만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고 남은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여 답해야 합니다.

3, 4단계는 실무진 면접과 경영진 면접입니다. 실무진 면접에서는 그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 전공과 환자의 사례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환자 사례별로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과 중재를 학습하고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재와 검사를 답할 때에는 해당 중재와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갖고 답을 해야 합니다. 이번 면접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면접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는데, 면접 전날 받는 문진표에 잔기침이 있어 체크하여 정해진 날에 면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여 2일 뒤에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접 전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면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4차 경영진 면접에서는 서류전형 때 제출하였던 자료들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병원의 홍보 자료와 이슈 등을 찾아보았고, 면접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병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4차 경영진 면접에서는 3차 실무진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을 한 번 더 받아 전보다 깔끔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차 면접까지 합격하게 되면 이후에는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고, 국가고시 합격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이 마무리됩니다.

병원에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병원을 지원하는 경우, 면접 일정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고자 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고되고 탈락으로 인해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워온 바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④ - 국제한인간호재단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



20학번 구현준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한인간호재단이 주최하는 전국대학생서포터즈로서 활동 중인 20학번 구현준이라 합니다. 전국대학생서포터즈로서 저는 질병관리본부의 도움을 받아, 2020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활동 중입니다. 주된 활동 방식은 소셜네트워크에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홍보물을 게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7월 말에 비대면으로 발대식이 진행되었고, 매주 활동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 식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인 현재까지, 저는 대학생 서포터즈로서 국제한인간호재단에서 제공하는 강의들을 수료하고, 총 7개의 포스터를 공유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료한 강의들의 내용은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서 진행되었으며, 그중에는 국제 보건 및 의료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헬스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비롯하여 현재 전세계의 건강문제를 알 수 있었고, 보건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홍보물 게시를 통해 서포터즈로서의 업무를 다했습니다. 포스터들 중 첫 번째로는 8월 피서철에 맞추어, 국민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휴양지에서의 권장사항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 관련 안내사항이 담긴 포스터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포스터들을 통해 마스크의 유형별 착용법, 마스크 착용 시 유의사항 그리고 정확한 손세척 방식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안내했습니다. 마지막 포스터를 통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준수사항이 담긴 내용으로써, 국민들에게 관련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아직 대학생 서포터즈로서 활동한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함에도, 활동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저는 국제보건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들에 있어서 보다 높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서포터즈 업무 중에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주변 지인들이 제가 공유한 포스터들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입니다. 지인들이 제 활동으로 인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확인하고, 거리두기별 방역지침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을 건넬 때, 서포터즈로서의 활동에 대한 의의를 제 스스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1학년에 불과하여 전공수업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간호학에 대한 이해도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그런 부족한 저였지만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어쩌면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 중 하나인, 진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에 조금은 가까워진 듯 합니다. 저희 학교에 어울리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아직도 공부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지만, 좋은 기회를 주신 덕분에 꾸준히 성장해나가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성실히 학업에 정진해나갈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GKNF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및 GH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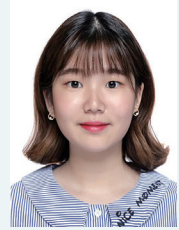


이번 발대식과 Global Health Leadership Program을 통해 서포터즈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소중한 순간을 가졌습니다. 김의숙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새롭게 선발된 2020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GKNF 대학생 서포터즈가 전국 각지에서 홍보 활동을 하며 간호 학도로서 자신의 소양을 발전시키고 더 큰 존재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⑤ - COVID-19가 가져다준 새로운 경험



17학번 전유진

COVID-19 확산과 동시에 올 한해 제 삶에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병원 실습이었습니다. 블록제의 형태로 이론 수업을 먼저 다 진행한 후 중간고사를 치고, 6주 동안 2주씩 3개 과목의 실습을 진행하고 기말고사를 치는 형태로 4학년 1학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실습하며, 동시에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였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보람차게 보낸 학기라도 단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 불가능했으며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갔기에 가끔은 갑자기 병원 실습을 며칠간 할 수 없다는 공지를 받는 등 불안정한 스케줄이 이전 실습과는 달리 가장 힘들었던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실습의 경우 외부 병원 실습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2주 동안 같은 병동에서 실습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COVID-19 확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감염 관리'와 관련된 주제로 병동을 분석하였기에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부 병원 실습에 대한 아쉬움은 정신간호학 실습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을 실습지로 선택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보낸 6주였으나 환자와 소통도 많이 하고 마지막 실습인 만큼 더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비대면 수업과 블록제라는 새로운 교육 체계를 경험해본 것도 뜻깊은 경험으로 남을 듯합니다.

사실 4학년인 저에게 실습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왔던 부분은 취업 준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직 과정을 이수하면서 졸업을 한 학기 늦췄고, 그에 따라 동기들에 비해 취업이 한 해 늦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원래 2020년은 스펙 쌓기 등 취업 준비를 위해 가장 큰 투자를 하려고 계획했던 해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토익공부를 시작했고, 더하여 여러 대외활동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제게 들려왔던 소식은 'UIC', 'SNU in'과 같은 프로그램들의 취소, 해외봉사 불가능 등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곳곳이 포기하지 않고 매진했던 토익 역시 시험을 며칠 앞두고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경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SNU공헌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지역 주민을 1차 사업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세계 시민을 2차 사업 대상으로 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건강관리 및 만성 질환에 대한 질병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여 Health Literacy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캠페인' 팀에 지원하였고,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6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콘텐츠 기획, 제작, 피드백 등 모든 회의가 실시간 ZOOM 화상 회의로 이루어졌으며, 제작한 콘텐츠들은 모두 Instagram, Youtube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봉사 활동이었으나, 그동안 간호학과에서 공부하며 쌓아왔던 다양한 건강 관련 지식들을 세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홈트레이닝 등의 이벤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이번 활동은 간호사를 꿈꾸는 저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봉사활동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우분들에게 이와 같은 디지털 캠페인 참여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올 한 해는 개개인별로 각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와는 달리 지난 몇 달간 취업과 실습을 병행했던 제 동기들은 어쩌면 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며, 후배님들은 비대면 수업을 듣느라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모두가 보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어려움 없이 계획한 삶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⑥ - 신입생의 온라인 캠퍼스 라이프



20학번 정여진

안녕하세요. 1학년 1학기 대표 정여진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 을 기다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가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비대면 수업에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다 체념한 20학번 새내기 중 한 명으로서 그 사실이 정말 아쉽고 서운합니다. 사실 즐거움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았던 1학기 이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을 기록해두면 언젠가는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1학기를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고, 대학의 수업방식과, 비대면 수업 등 온통 새로운 것들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달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대학 생활이 아쉬웠지만 모두 아쉬운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쉬

움을 달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줌(ZOOM)으로 모여 술자리를 갖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캠퍼스를 거닐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고 아쉬운 점보다는 장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해 정말 많이 아쉽지만 다들 나름대로의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었다가 취소되어 이제는 기대하지 않으려 하지만 2021년에는 꼭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모든 나쁜 기억은 2020년에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행한 캠퍼스가 학생들의 소리로 다시 북적거리고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믿고, 그날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꽃피는 삼월에는 캠퍼스를 거닐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창회 소식 01

동창회 교육연구재단 2020년도 2학기 장학생 명단

간호대학 동창회교육연구재단에서는 2020학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 620만원을 모교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10명에게 지급하였다. 장학금 수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명	과정	성명	장학금액
임난영(71졸)	4학년	김현지	100만원
이광자(68졸)	4학년	김드림	100만원
최애옥(50졸)	1학년	김한나	100만원
간호대동창회	석사	손소현	90만원
이윤경(69졸)	석사	김유진	70만원
이애주(69졸)	석사	김지우	40만원
이귀향	석사	김유진	40만원
이선옥(73졸)	석사	정하나	40만원
이정자(63졸)	석사	김애리	40만원



대학원 소식 01

2020 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간호학 석사(12명)

이예원	중국 거주 재외국민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조사연구
이다연	최초질환노인의 통증, 보행 효능감, 일상생활수행 능력과 낙상 두려움
김재훈	환자 익명화 시스템에 대한 외래 간호직원의 수용에 관한 연구
함주희	호흡기환자들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유나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소통 만족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성지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재원환자의 제공인력 호출과 간호필요도 분석
이주연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단기입원 환자의 퇴원준비도 영향 요인
조윤정	중환자실 간호사의 개인보호구 착용 지식, 태도, 안전환경 인식과 수행도
황유민	조혈모세포이식 후 소아청소년의 건강관련 삶의 질 관련 요인
김은하	보호병동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의 분노와 입원생활적응과의 관계: 병식의 매개효과
최현지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
김은미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와 예측 요인 분석

간호학 박사(16명)

노은영	남성독거노인의 우울 구조모형
류소임	Exploring factors affecting dementia worry: Compari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김지연	Effects of Physical exercise program using self-efficacy resources for family caregivers of persons with dementia
유수영	북한이탈주민의 결핵 투병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김정하	항공기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지상의료시스템의 이용 현황 분석
정유진	간호학 전공 여성 대학원생의 건강 구조모형
조주현	학령기 후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한수연	부모 대상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장혜영	임부를 위한 조기진통 증상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평가
이영진	염증성 장질환 여성을 위한 임신 전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최덕자	회복 증진을 위한 수용전념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심리적 유연성, 희망, 약물이행 및 정신사회적 기능수준에 미치는 영향
유형주	입원생활안내 교육동영상 제작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평가
고정연	유방암 수술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의 경제성 평가
김미향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조산족 어머니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김미령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을 위한 케어로봇 개발 요구도 분석
홍영주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child vaccination Chatbot Based on a Real-time Consultation Messenger Service

대학원 소식 02

수상실적 및 지원금

지원금	수여자	전공
2020학년도 보건장학회 학술연구비 지원	나성실	지역사회간호학 박사과정
	김잔디	정신간호학 박사과정
2020년 서울대학교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김초희	아동간호학 박사수료
2020년 한국시그마학회 박사학위 논문계획서 지원	정수정	성인간호학 박사과정
2020학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학술연구교수) 지원	김잔디	정신간호학 박사과정
중독포럼 2020 중독분야 연구지원사업	김미숙, 신유진, 김잔디, 김병희	정신간호학
수상 실적	수여자	전공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한마음 장학금	김은미	성인간호학 석사과정
	양은진	성인간호학 박사과정
	최기원	성인간호학 석사과정
	함현정	성인간호학 석사과정
경기도 간호사회 간호학술 장학금	김은하	정신간호학 석사수료

대학원 소식 03

교수 임용

본교 대학원생 중 2020년 상반기 교수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담당 교과목)
아주대학교	김희준	성인간호학
초당대학교	이정희	성인간호학
한양대학교	여지영	아동간호학
창원대학교	유주연	아동간호학
경북대학교	김다은	지역사회간호학
가천대학교→강원대학교	민열하	기본간호학
영남이공대학교	윤효정	기본간호학

대학원 소식 04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Virtual MNRS 44th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20 Chicago, United states (2020.04.01.~04.)	
Efficacy of the Computer Simulation-based, Interactive Communication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구두 발표)	양은진, 장선주, 이경은, 류현주
Virtual STTI 5th Biennial European Conference Coimbra, Portugal (2020.05.28.~29.)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health satisfaction among elderly people: correlation and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 Based on the 2017 Digital Divide Survey (포스터 발표)	최희승, 이우진, 전예슬
Sigma's VIRTUAL 31st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2020.07.22.~24.)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health satisfaction among elderly people: correlation and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포스터 발표)	김희정, 장선주
Transcultural nursing experiences among Korean Nurses (포스터 발표)	김주리

대학원 소식 05

대학원생 이야기 ① - COVID-19 중환자 간호를 위한 파견을 다녀와서



간호관리학 석·박사통합과정 18학번 김수연

“대구에서 전원 온 코로나 환자가 지금 CPR(심폐소생술)하고 있다는 데, 수연아 오늘 바로 나이트 출근해줄 수 있니?” 나이트 근무가 끝나고 자다가 받은 수간호사 선생님과 통화 속 첫마디였습니다.

국내에 코로나바이러스 첫 감염환자가 발생하던 1월, 제가 근무하고 있던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COVID-19 중환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 지원자를 미리 받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당시 간호대학 4학년이었던 저는 중증 메르스 환자들을 간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파견을 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추후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저도 꼭 사명감을 가지고 중환자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COVID-19 중환자실 간호사 파견을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1월에 파견을 지원한 후 2개월 정도가 지난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꿈꿔왔던 사명감과 달리, 전화를 받고 떨리는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 전 바로 PAPR(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전동식 공기 정화 호흡기)과 Level D 전신 보호구 교육을 받고 출근한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간호한 할아버지와 첫 만남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CPR 후 ROSC 된 할아버지에 게 중환자 치료가 밤새 계속되었고, 전신 보호구를 입은 채로 중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낮선 격리음압병동 한 칸에 갇혀 8시간을 함께한 긴긴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점점 좋아진 할아버지는 인공호흡기를 떼어낼 수 있게 되었고, 워낙 기저에 있던 치매가 환자의 현재 상황과 더해져 섬망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할아버지와 전쟁과 같았습니다. 출근 전 “저 또 할아버지랑 싸우러 갑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할아버지가 다시 인공호흡기를 넣지 않도록 고군분투한 일주일도 또 지났습니다. high flow(고유량 산소요법)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무지막지한 욕을 들으

며 suction과 lung care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 83세의 할아버지가 버티기엔 힘든 것들이었는지 할아버지는 다시 호흡곤란증후군이 진행되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했고, 기관절개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2번 연속 COVID-19 검사 결과가 음성 나오고, 오랫동안 sedation(진정) 약들을 쓰다 할아버지를 깨운 지 며칠 뒤, 할아버지가 과격함을 보이지 않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새 보니 수북하게 자란 수염들이 보였습니다. 면도기를 구해와 할아버지의 수염을 깨끗하게 밀어드렸습니다. “OOO 할아버지,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직 인공호흡기를 못 뗀 할아버지였기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지고 볶았는데 다 나아서 퇴원하셔도 저희 잊으시면 안돼요~” 또 한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날이 할아버지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짧고도 길었던 COVID-19 중환자 파견을 끝내고 원래 있던 외과계중환자실로 복귀했습니다.

격리병동에 있을 당시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 명의 환자를 간호해서 퇴원시키는 것도 뿌듯하겠지만, 수연 선생님처럼 한 명의 환자에게 온 우주가 되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해.” 생각해보면 할아버지한테만 우리가 온 우주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할아버지를 간호한 저에게도 할아버지가 온 우주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동 후엔 중환자실에 서의 일들을 거의 잊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가 전동할 때 꼭 기억하겠다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 한마디로 뿌듯함을 느끼는 중환자실 간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애증의 할아버지, 가족들이 있는 대구로 다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기억 못해도 괜찮으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복귀했지만 지금도 힘든 보호복을 입고 코로나 환자(중환자)와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모든 동료분들 힘내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학원 소식 05

대학원생 이야기 ② - 보건 교사로서의 새 출발



아동간호학 석·박사통합과정 14학번 서은비

병원 간호사에서 학교 보건 교사가 된 지 이제 2개월쯤 되어가는, 석·박사통합과정 14학번임에도 아직도 재학과 휴학을 반복하고 있는, 많이 부족한 학생이자 초임 보건 교사입니다. 벌써 병원을 그만둔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병원에서 일했던 시간이 훨씬 길어서인지 아직은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보다 병원 후배들이 “ 쌤!! ”하고 부르는 것이 익숙한 제가 감히 보건 교사로서 저의 생각을 어딘가에 쓴다는 것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여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규의 시선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서 보건 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학교 밖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는 대로만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보건 교사는 간단한 응급처치부터 전염병 관리, 학생 건강검진 및 영양조사 관리, 보건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교 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운영합니다. 또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건강상담 및 교육,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업무 등 생각보다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 제가 학교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적어보자면, 먼저 오전 7시까지 출근하여 학생들 등교 시 발열 체크를 합니다. 학생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체크를 잘하는지, 발열 학생은 없는지, 마스크 착용 상태 등을 확인·지도합니다. 등교 시간 종료 후에는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전 건강 상태 자가진단을 시행했는지 확인, 독려하고 자가진단 결과 발생한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 현황 등을 파악·보고합니다. 이후 보건실 방문 학생 응급처치 및 병원의뢰, 교직원 건강상담, 공문 처리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업무 중 코로나 관련 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키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선별진료소에 각각 연락해 돕니다. 학교는 밀폐, 밀집, 밀접의 3밀에 취약한 환경인 만큼 연락과 동시에 관련 증상이 있던 학생이 사용한 교실을 환기·소독할 수 있도록 담당 선생님께 협조를 구하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는 보건용 마스크를 배부하여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 평소 이 같은 돌발 상황에서 구성원이 당황하지 않고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하고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매, 관리하는 것도 저의 담당 업무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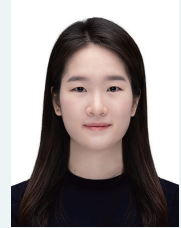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으로 간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병원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며 비정기적으로 유입되는 해외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에서 보건 교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늘어난 보건 교사 선발인원이 그 방증이겠죠. 공문보다 먼저 방송을 통해 처리해야 할 일을 짐작하기도 하고 그와 관련한 민원전화에 당황하기도 하는 ‘공무원스러운’ 면도 있지만, 보건 교사는 분명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 교사의 업무는 개인의 역량과 의욕이 더 중요한, 즉 일관된 업무표준이 부족한 상황이며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그 업무의 범위가 너무 다양합니다. 어디서나 만능해결사가 되기를 요구받는 간호사들,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업무뿐 아니라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 등의 업무 수행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보건 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인 만큼 고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및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차별 없이 부자에게도 아닌 사람에게도 감염된다는, 그들의 생활에 미치는 타격은 그렇지 않음을 보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과 일차 의료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 ‘라면 형제’로 국민의 안타까움과 걱정을 샅던 인천 화재 사건의 동생이 결국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어른으로서의 미안함과 동시에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주변에 그 관심과 열정을 나누는 일 또한 간호사로서, 간호학도로서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대학원 소식 05

대학원생 이야기 ③ - Duke university에서의 새로운 도약



성인간호학 석사 졸업생 유현빈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도 졸업생 유현빈입니다. 2019년 8월 석사 졸업 후, 현재 Duke University에서 박사과정 첫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부생 때부터, 그리고 졸업 후에도 종종 기회가 되면 소식지를 읽곤 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실을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 출국하게 되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미국 도착까지 마음 졸였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조언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제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막연히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닿아 학부 시절 UCLA 하계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고,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언젠가 유학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 졸업 후 서울대병원 MICU에서 근무하면서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연구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학교들은 대부분 12월 원서 마감이었고, 저는 6월 석사 학위논문이 완성되어 갈 즈음부터 유학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름에 영어에 집중하여 점수를 만들었고, 그 이후 학업계획서 (Statement of Purpose) 등 기타 지원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느꼈기에, 유학을 결심하셨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점수들은 만들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에 원서 지원을 마무리를 하면 1-2월 경 학교마다 인터뷰를 보고 빠르면 2월 중 늦어도 4월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평소같은 상황이었으면 출국 준비를 좀 더 천천히 할 수 있었을텐데 COVID-19의 여파로 대사관이 닫아 학교 개학 1달 전까지 출국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 대사관이 재개하여 비자를 받고 학기 시작 1주 전에 무사히 도착하여 미국에서의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비교적 작은 동네이고, 학교 주변이라 주변 상황에 비해 비교적 조용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Hybrid로 수업을 진행해서 가

끔 학교에 가 수업을 듣는 날도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실 COVID testing을 하거나 산책하러 학교에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쁜 건물에서 수업을 듣고, 학기 시작 후 여러 행사도 있어 참여하였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곳에서의 5년 동안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테니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COVID-19 상황에 조금은 걱정이지만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surveillance testing 진행을 하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고 있어서 그래도 걱정이 한시름 놓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점이라면 동기들 숫자가 예년보다 적어 동기들과 친해지기 수월했던 것입니다. 홀로 이곳에 와서 아는 사람 없이 정착하려면 정말 막막했을 텐데, 동기들 덕분에 빨리 적응하고 끈끈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박사과정에 저 혼자 외국 학생이라 주변에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점은 박사과정 동안 학비 지원과 함께 stipend를 받아 학업 및 연구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이름으로만 보던 교수님께서 하시는 수업에서 함께 토론하고, 저에게 도움이 될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것 같아 즐겁게 학교생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수업은 대부분 주제별로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매주 읽어가야 하는 양에 조금은 버겁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한 곳에 집중하여 지나친 점들까지 다시 보게 되어 제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학기를 시작하여 필수 과목을 듣는 게 고작이지만, 이 기간 동안 많이 배우고 저의 skill set을 잘 쌓아 이후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길 바라며, 이 기회들을 통해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지면을 할애해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적고 나니 학교 교수님들과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에게 미국에서 안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20년 3월 1일~2020년 8월 31일

학사동문 및 간호대학 교수			
MK 헤리티지(79졸)	강자현 교수	공은희(95졸)	김문숙(91졸)
김성재 교수(81졸)	김씨래(11졸)	김영아(88졸)	박지선(06졸)
방정숙 교수(85졸)	서은영 교수(94졸)	윤주영 교수(02졸)	윤효정(08졸)
이경숙 교수(04졸)	이은주(94졸)	장명석(14졸)	장선주 교수(02졸)
채선미 교수	탁성희 교수(90졸)	허익수 교수	황보영 교수(96졸)
기타			
강지영(박사 졸업)		민병걸(17학번 민현지 부)	
조주현(박사 졸업)		황유민(석사 졸업)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 간호대학은 관악캠퍼스로의 이전이 확정되어, 2025년 간호대학 신축건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필요한 기금 마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간호대학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 농협 079-17-000136 서울대발전기금
* 신한 100-014-328209 서울대발전기금
* 우리 1006-601-280134 서울대발전기금

문의처 : 간호대학 02-740-8802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건립기금 모금 캠페인

간호대학은 연건캠퍼스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다학제-융합 간호연구 및 공공간호 복지아젠다 수행을 위한 환경조성과
내실있는 학사행정 운영을 위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한 건립기금 모금에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